

‘어게인 1983’ 세네갈 넘으면 우승도 꿈 아니다

‘U20 월드컵’ 한국, 일본 1-0 꺾고 8강 진출

전반 수비 집중 후반에 올인...오세훈 결승골 일본 격침
9일 새벽 8강전...아르헨·프랑스 등 우승후보 줄줄이 탈락



정정용 감독이 극적인 전술변화로 한일 전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이 ‘속적’ 일본을 상대로 16년 전 2003 U-20 UAE 대회의 패배를 설욕하고 8강에 진출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5일 새벽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39분 공격수 오세훈의 헤더골로 일본을 1-0으로 이겼다.

고(故) 이광중감독이 이끈 2013년 터키 대회 이후 6년만에 8강에 안착한 한국은 나이지리아를 꺾고 올라온 세네갈과 오는 9일 새벽 3시30분 준결승전을 다룬다.

한국은 이날 지난 1일 2-1로 승리한 아르헨티나전과 같은 5-3-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에이스 이강인(발렌시아)과 오세훈(아산무궁화FC) 투입에 조영욱(FC서울)과 광주 급고고 출신 김정민(리퍼링)이 2선에 배치됐다. 일본은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초반 한국이 거세게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본이 적극적인 몸싸움을 걸었다. 일본은 예선전과 반대로 수비라인을 내

리고 특유의 짧은 패스로 한국을 괴롭혔다. 수세에 몰리던 한국은 전반 44분에 김정민이 무회전 중거리슛을 날렸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무위에 그쳤다.

반전 카드는 후반에 나왔다. 전술변화였다. 일본은 허둥했다.

중앙수비수 이지솔(대전)을 빼고 측면 원어 엄원상(광주FC)을 투입해 포메이션을 4-4-2으로 전환했다. 빠른 발이 장기간 엄원상은 특유의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괴롭혔다. 엄원상은 계속해서 일본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일본 수비수들은 공간을 내주고 빈틈을 노출했다.

운도 따랐다. 후반 3분 일본의 미야시로 다이센(가와사키 프론타레)의 슛을 골키퍼 이광연(강원)이 막아냈으나 뒤에 달려들던 고계 유타(빗셀 고베)가 원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VAR 판독이 시작됐고, 주심은 간접프리킥을 지시했다. VAR 결과 미야시로에게 불이 향할 때 오프사이드였다.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막내 이강인은 개인기와 킥력을 앞세



“기다려, 세네갈” 5일 새벽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 한·일전. 후반 오세훈이 결승 헤더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 공격을 이끌었고 데드볼 상황에서는 예리한 원발슛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장신 공격수 오세훈은 재공권은 물론 안정적인 볼 컨트롤로 불을 지켜내며 공격을 이어갔다. 한국은 후반 18분 조영욱을 빼고 FIFA

U-20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5골을 넣은 전세진(수원)을 투입해 공세를 이어갔다.

후반 26분 골키퍼 이광연의 선방에 이어 후반 33분엔 일본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자 전화위복의 기회가 왔다.

후반 39분 상대가 페널티박스에서 걸어난 공을 왼쪽 풀백 최준(연세대)이 잡았고 곧바로 오른쪽 풀백 크로스를 올렸다. 골문 앞에 있던 오세훈은 크로스를 절묘하게 방향전환했다. 오세훈의 머리를 떠난 공은

일본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혔다. 한편, 한국은 8강전에서 세네갈을 꺾을 경우 미국과 에콰도르전 승자와 결승행을 놓고 맞붙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MLB 중심에 ‘코리안 리거’

추신수 200홈런

9시즌 두자릿수 홈런...200 홈런 기록 보유도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 리그 개인 통산 200홈런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추신수는 5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홈 경기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첫 타석에서 홈런을 터트렸다.

추신수는 0-4로 밀린 1회 말 상대 선발 투수 딜런 번디의 초구 볼을 골라낸 뒤, 2구째인 시속 147km(91.5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퍼 올려 가운데 담장 뒤를 넘기는 솔로 홈런을 작렬했다.

추신수의 시즌 11호, 통산 200호 홈런이다. 메이저리그에서 200홈런 고지를 밟은

선수 중 추신수가 아시아 선수 중 처음이다. 추신수는 이미 아시아 타자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다.

그는 지난해 5월 2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 경기에서 통산 176호 홈런을 기록하며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은퇴·175홈런)를 넘어섰다.

3위 스티브 이치로(117개)도 은퇴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신수의 아시아 선수 최다 홈런 기록을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데뷔 2년 차인 2006년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첫 홈런을 친 추신수는 2008년 주전 자리를 꿰차며 14홈런을 기록했고, 2009년 20개, 2010년 22개의 홈런을 터트

렸다.

2013년 신시내티 레즈에서 21홈런을 쳤고, 텍사스로 옮긴 뒤에도 2015년 22개, 2017년 22개, 2018년 21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최고의 베데랑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2019년 들어서도 이미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추신수는 통산 200홈런 고지까지 밟으며 아시아 빅리거 새 역사를 썼다.

덤덤한 표정으로 베이스를 돈 추신수는 달라이노 디실즈, 엘비스 안드루스, 루그네트 오도어와 가볍게 포용하며 새 기록을 기념했다.

한편 추신수는 5타수 2안타(1홈런) 1볼넷 2타점 2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류현진 다승·ERA 1위

(평균자책점)

애리조나전 7이닝 무실점 시즌 9승... 통산 49승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5월의 투수’에 빛나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여세를 몰아 6월의 첫 등판에서도 거침없이 승리를 따냈다.

류현진은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벌어진 2019 메이저 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안타를 단 3개만 내줬고, 삼진은 2개를 잡았다. 땅볼로만 아웃 카운트 15개를 채

워 패투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저스가 9-0으로 완승하면서 류현진은 시즌 9승(11패)과 개인 통산 49승째를 챙겼다.

팀을 7연승으로 이끈 류현진은 4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서 시즌 3승째를 수확한 이래 7연승을 구가했다.

또 시즌 평균자책점(ERA)을 1.48에서 1.35로 낮춰 메이저리그 이 부문 1위를 질주했다. 다승과 평균자책점 모두 내셔널리그 1위다.

류현진은 또 체이스필드에서 2014년 4월 12일 이래 5년 1개월, 날짜로는 1880일 만에 승리를 보냈다.

그는 이날 애리조나를 맞아 3회 2번에 두아라도 에스코바르부터 7회 첫 타자 다비드 페달타까지 12타자를 연속으로 범타로 돌려세웠다.

한편 류현진은 4회 2사 2루에서 클라크의 빠른 볼을 밀어 중견수 앞으로 시즌 3번째 안타를 날렸다. 2루 주자 라셀 마틴의 발이 느려 홈에서 아웃된 바람에 시즌 두 번째 타점을 올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